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연수 강화

교사별 학생부 기재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집합 연수를 제공하고 원격 연수 콘텐츠 보급을 통해 교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역량을 제고합니다.

* 서울형 기재 항목 작성, 학생부 권한 관리, 학생부 민원 대응 등 특정 분야별 세분화된 주제 및 수준의 연수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움자료 확대 보급

(기재요령 개발·보급) 시도교육청 학생부 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현장의 요구 및 초·중등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기재요령을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기재 도움자료 개발·보급) 지역, 학교급, 학교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부 기재에 대한 세부내용, Q&A 등이 포함된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술식 기재영역 분량

개별 학생에 대한 내실있는 기재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3,000자→1,700자)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00자→500자)의 입력 가능 글자 수를 축소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운영

현장 교원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학생부 개선 사항 의견수렴, 단위학교별 자체 연수 등에 도움을 주는 시도교육청별 학생부 현장실무지원단 운영을 지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지원센터' 운영('20~)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학생부 민원응대, 교사 질의 회신 등을 담당하는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더욱 엄격히 관리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단위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회 이상 확인·점검합니다.
- 교육청에서는 매년 소속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합니다.

▶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위법행위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김경에서도 제외됩니다.

▶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학생부 서술형 기재 항목의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 간 보관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권한부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달라진만큼 철저하게!



〈학생·학부모용〉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기록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부

학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생활기록부의 신뢰도·공정성을 높입니다!



정규교육과정 내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학생부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 및 요소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학부모)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고, 대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교원)

“증복되거나 과도한 입력항목을 정비하여 교원의 기재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 중심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교원단체·시민단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보다 유의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학관계자)

▶ 학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항목	개정 전
공통	인적 사항	•(인적 사항) 학생 정보, 가족사항(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학적 사항)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출결상황	• 질병·무단·기타결석
	봉사활동	•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자율 동아리 활동	• 기재 개수 제한없이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판에 기재 (초: 선택적 기재 / 중·고: 상급학교 미제공)
	청소년 단체활동	•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활동 모두 기재(단체명, 활동내용)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 구체적 활동내용(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기재
초	기재 분량	• 특기사항 기재분량: 3,000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방과후 학교 • 활동(수강) 내용 기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기재분량: 1,000자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중·고	수상 경력	•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개인별 이수시간 및 활동 내용 분리 기재
중·고	수상경력	• 수상경력 모두 기재, 상급학교 제공 개수 제한 없음
	(고)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 대입자료로 제공



인적·학적사항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성명, 생년 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을 삭제하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통합하였습니다.

* 특기사항에는 학적 변동 관련 내용만 기재

수상경력

학생 간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 학교의 수상경력은 삭제, 중·고등학교의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제한(학기당 1개)합니다.

소논문(R&E) 활동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활동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단체활동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기재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합니다.

* 정규 동아리로 편성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기사항까지 기재 가능

교과스포츠클럽활동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 내용이 종복되는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 중·고등 학생의 경우 학생의 진로희망 분야는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초등의 경우 진로희망 분야가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희망 분야는 선택적 기재

신뢰도, 공정성이
UP! UP!

